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김 국 현 (경주대 관광학부 교수)

◆ 논문 요약 ◆

통일한국의 우선적 과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통일 이후 주민간의 갈등과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핵심적인 교육과제는 반편견 교육이다. 반편견교육은 통일한국의 주민들이 통일된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적극적 행위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의 반편견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고정관념과 심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주민간 편견의 형성원인을 체제의 이질성과 사회문화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반편견교육의 방안에 있어서는 편견해소의 기법들을 활용하여 반편견교육의 방안을 방향성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I. 서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심리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심리적 갈등은 사고, 가치, 생활습관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편견으로 인한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가진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편견, 불신과 적대적 감정, 차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현재 세계화과정의 심화 속에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현상은 통일 이후 국내외적으로 보다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통일 이전보다 지역, 계급,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다원성이 보다 제고된 사회일 것이다. 다원화 현상은 근원적으로 분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주민간 갈등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나타날 국민들의 심리적 갈등과 관련하여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들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반편견 능력의 발달을 돕는 것이다. 즉 통일한국에서 주민들의 생활방식, 사고와 가치의 차이, 그리고 상호 몰이해에 근거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갈등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한국의 우선적인 과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이다. 심리적 통합은 주민들에게서 상호신뢰, 우의의식, 그리고 통일국가에의 소속감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깊은 편견이 존재한다. 주민들의 편견은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을 심화시켜왔다. 편견에 대한 의지적 개입이 없을 때 편견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편견은 실제 생활세계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접촉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실천적 과제는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해온 깊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다. 통일한국의 교육은 남북한 주민들 상호간에 반편견과 한국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다양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편견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일 문화적 접근의 교육은 통일 이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교육적 기능도 담당할 수 없게 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반편견교육은 통일한국의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고,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위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적 편견과 차별, 불평등구조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과 동시에 편견과 불평등에 도전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실천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반편견교육은 통일한국의 중요한 교육과제가 된다. 반편견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 언론, 민간단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부모교육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편견의 실태 편견의 형성원인, 편견해소를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논의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의 실태를 파악하여 남한 주민의 편견과 북한 주민의 편견으로 구분하되 부정적 고정관념과 심리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의 형성 원인을 체제경쟁과 타자화, 사회문화적 학습 원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셋째, 남북한 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으로 인해 통일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 및 차별의 양상을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반편견교육 기법들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 후 교육방안의 초점을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주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II. 편견과 반편견교육의 개념

1. 편견의 개념

1) 편견의 정의

모든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능력, 나이, 외모, 계층, 장애,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등에 걸쳐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은 일상의 의사결정이나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아정체감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견은 실제적인 경험 이전에,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경멸, 혐오, 공포, 회피의 감정,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등의 다양한 적대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편견은 사실이 아니고 경직된 일반화에 근거를 둔 반감으로서, 느껴지거나 표현된다. 편견은 집단 전체에 향하거나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각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견의 대상은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¹⁾

반편견(anti-prejudice)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어떤 주의들(isms)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것으로서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편견의 구성요소

편견은 태도의 세 요소인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위적 측면을 포함한다.

편견의 인지적 측면이 고정관념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는 특성에 대한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인 신념이다. 고정관념은 “그들은 모두 나쁜 특성을 지니고, 하나같이 똑같으며, ” 우리와는 다르다“로 대표될 수 있다. 고정관념은 대상집단에 대한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일으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 고정관념은 사실에 기인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범주를 단순화하고, 적대감을 정당화하고, 개인 갈등의 투사(projection) 스크린으로 작용한다. 고정관념은 주로 대중매체에 의

1)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이원영 역, 『편견의 심리』 (서울: 성원사, 1993), pp. 30-32.

2) Todd D. Nelson, *The Psychology of Prejudice*(Boston: Allyn & Bacon, 2002), p. 11; R. D. Ashmore & F. K. Del Boca,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New Hersey: Erlbaum, 1981), p. 16.

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지지되고, 강화되고, 주입됨으로써 존재한다.

편견의 근원이 되는 감정적 요소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 배타적, 적대적 감정이다. 편견의 행위적 요소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서 고용, 투표, 친교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다. 외집단 성원에 대해 내집단 성원보다 더 작은 보상을 주는 행위, 덜 돕는 행위, 덜 친밀한 비언어 행위 등을 말한다

편견의 세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³⁾ 고정관념은 편견을 강하게 만들며 편견은 다른 사람의 특질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과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행동이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고정관념은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확대되기도 하고 행동의 준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며, 자신의 태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역할을 한다. 집단 내부의 개인적 특성으로 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편견에는 종종 고정관념이 동반된다. 고정관념화는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한 집단의 전체의 동질성과 특징을 과장하는 효과를 지니며,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된다. 물론 편견적 태도가 당연히 차별적 행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황에서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가치들이 편견을 억누르거나, 상황적 요소가 편견 소유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때 편견은 차별적 행동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 편견은 차별적 행동을 초래한다. 편견의 발달은 아동에게 사고나 태도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편견을 생활의 방편으로 발달시키도록 하는 것이다⁴⁾

3)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1호(1999), p. 1.

4) Allport, *op. cit.*, pp. 253-272; Melinda Jones,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New Jersey: Pearson Education), p. 12.

3) 편견의 근원

(1) 사회적 학습

편견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편견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정이다. 아동은 부모의 편견을 여러가지 이유로 획득한다.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고정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현상과 통용되는 믿음을 수용하고, 그 믿음에 대한 동조요구, 배척받지 않으려는 욕구 등에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캣츠(P. A. Katz)에 의하면, 아동의 성, 연령, 인종, 장애 등에 관한 인식은 다섯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 1단계에서는 인종이나 성에 대한 범주적 단서를 관찰한다. 2단계에서는 초보적인 기본개념을 형성한다. 3단계에서는 이를 개념적으로 분류한다. 4단계에서는 인종적 차이 등에 대한 단서가 불변적임을 인식한다. 5단계에서는 이 단서를 집단개념으로 인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집단개념을 정교화한다⁵⁾

유아들은 2세 정도부터 타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종, 민족, 성, 장애, 사회적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접하게 된다. 아동들은 3세 전후의 시점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기준과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어 성, 인종적 선입견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4-5세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의해 정의된 적절한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성인의 간섭없이 다른 아동들 상호간에 강화된다. 성, 인종, 민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발달은 2세부터 시작되어 5-6세가 되면 분명해지며, 대부분의 아동들의 경우 10-12세 경에 편견이 구체화된다.⁶⁾

5) P. A. Katz, "Development of children's racial awareness and intergroup attitudes," In L. G. Katz(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New Jersey: Norwood, 1982), pp. 17-54.

6) Walter Stephan, *Reducing Prejudice and Stereotyping in Schools*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1999), p. 39.

(2) 인지적 기원

편견의 인지적 기원은 범주화, 사회정체성, 자기범주화, 내집단 편애, 외집단 동질성 등에 의해 설명된다.⁷⁾

범주화는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주화는 사람들이 타인을 지각할 때 개별화하여 지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범주에 근거해 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묶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범주화된 대상은 그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선행 지식인 고정관념에 의해 왜곡되어 기억되고 판단되기도 한다. 범주화는 외집단이 내집단보다 확일적이라는 인식과 집단간 차이의 과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에 기초한 엄격한 기대와 행동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기초를 이룬다. 여러 가능한 범주 중 어떤 집단범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가는 그 상황에서 보다 특출해지는 범주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특정 역사와 경험에 의해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범주들도 타인을 지각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대상들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고, 자아존중은 사회정체로부터 이끌어내지는데 사회정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타집단에 비해 높이는 사회적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본다. 집단 간에 현실적 갈등이 없이도 단순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내외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심리적 사회적 경쟁이 일어나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킨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내집단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보고 외집단을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정체감을 고양하며, 내집단, 외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편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집단의 호의적 인상을 유지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집단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일들을 공로로 인정받지만, 외집단 구성원들은 부정적 행동이나 그 결과로 비난받게 된다.

자기범주화 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주화가 집단간 사람들의 차이와 집단

7) 김혜숙, 앞의 글, pp. 3-12.

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 한 이 대상들을 집단범주에 의거해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 종족, 지역 등의 범주가 두 집단 구성원들의 차이를 잘 구분해주도록 해주는 한 이러한 특정 자기범주화 및 타인범주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적 수준으로 자기 범주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집단간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지각하며 집단 내 성원들의 유사성을 더욱 크게 지각한다. 그리고 사회정체가 부각되면 비개인화(depersionalization)가 일어나고 자신을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외집단과 구분하는 자기고정관념화가 일어나 집단간 반목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3) 감정적 기원

편견의 감정적 근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은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신념보다는 감정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유는 감정은 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고정관념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듣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유는 많은 경우 고정관념은 차별행동에 대한 정당화로 사후에 발전하는 것이므로 편견적 태도에 감정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대적 의미의 은밀한 편견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감정은 맹목적 편견에서와는 달리 소수 집단에 대한 강한 위협 거부, 분노 등의 적대감이나 호전성이 아니라 자신의 양가 감정적 태도로 인해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불편함, 혐오,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부족이다.

영호남 지역편견도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특질, 즉 고정관념을 통해 편견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즉 적대감이 먼저 발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서 고정관념이 부각되는 것이다. 지역편견은 내외집단의 구분만으로, 즉 실제 대립적인 현실적 갈등이 없이 단지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만으로 타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감정 편견,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⁸⁾

8) 홍영오, “암묵적 편견이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

한 개인에 대한 편견적 판단이 그가 속한 집단에 고정관념과 감정 중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그 집단 범주에 대한 강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집단범주가 지각자의 집단과 대립적 관계를 가져왔는가, 그 집단이 다소 친숙하지 않은 집단이어서 별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인가, 즉 집단범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⁹⁾

2. 반편견교육의 개념

1) 반편견교육의 정의

반편견교육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편견교육은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반편견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맞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에 대항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적극적인 교육방식이다.¹⁰⁾ 학습자들이 인종, 민족, 장애, 사회계층, 종교 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등에 도전하여 모든 인간을 편견없이 인정하고 지원하며 존중하는 실천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반편견교육은 편견의 내용과 그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언급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학생들이 그릇된 편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적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다른 집단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인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너무나 강조되어 온 단일민족신화, 타문화

위 논문(2000), pp. 1-2.

9)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pp. 18-19.

10) P. G. Ramsey,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Young Children*, vol. 37, no. 2(1982), pp. 13-24

에 대한 학습기회의 부족 등으로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다 한 민족의 동일성, 단일성, 영토주의,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가치체계, 즉 가족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민족주의 등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 배타적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이러한 특성들은 민족통합을 유도하기보다는 배제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자기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한다 또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이러한 점에서 반편견교육은 현재의 한국과 통일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매우 절실한 교육과제이다.

반편견교육은 목적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교육과 유사하다. 그러나 편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적 능력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문화교육보다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반편견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반편견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반편견교육의 목적

반편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도적으로 외모, 능력, 성 장애, 문화, 고정관념 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유아기부터 다양한 편견에 도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반편견교육의 목적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편견없이 이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홀(N. S. Hall)은 반편견 교육과정의 주요목적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의식의 함양을 중시한다.¹²⁾ 모든 학습자들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가지며,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능력을 발달시키

11)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p. 12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연구』(2001), p. 212.

12) N. S. Hall, *Creative Resources for the Anti-bias Classroom* (Albany: Delmar Pub., 1999), pp. 2-3.

고, 자신감을 기르며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것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행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첫째,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발달이다. 여기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가족, 언어, 풍습, 행동, 종족의 정체감과 관련하여 자신을 인식하기, 집단, 또래, 민족, 종족, 계층과 관련하여 자신을 인식하기, 보다 큰 사회집단 즉 지역사회, 도시, 지방과 관련하여 자신을 인식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 목적은 학습자가 개인의 정체성 및 집단 정체성 양자와 관련된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공감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다. 여기에는 신체적 특징, 능력, 사회적 행동,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 인식하기, 한 가지 이상의 속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는 능력 기르기, 계층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자기 중심성의 감소와 역할 채택능력 기르기 등이 포함된다. 이 목적은 학습자가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 묻고, 배우고, 협의하며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고 반편견적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의 발달이다. 전체와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해석, 비교, 사고하는 능력, 추상적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기르기가 포함된다. 이 목적은 학습자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과 타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바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해주며, 공정한 대우와 불공정한 대우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인식하는 인지적 기술, 편견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넷째, 편견에 직면하여 도덕적 행동을 하는 능력의 발달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야기를 이해하고 등장 인물의 행동, 느낌,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시작하고, 계획, 조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 목적은 비판적 사고와 공감을 토대로 학습자가 불공정함과 편견에 직면하여 자신과 타인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램지(P. G. Ramsey)는 통합적 관점에서 반편견교육의 목표를 다음 여덟 가지로 제시한다.¹³⁾ 첫째, 성차, 인종, 계층, 문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발달이다. 둘째, 다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관련짓는 능력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넷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개방, 다른 사람을 기꺼이 수용하고 협동하려는 마음이다. 다섯째, 사회에 대한 현실적 인식, 책임감, 자신의 가족이나 집단을 초월한 적극적 관심이다. 여섯째, 사회환경에서 비평적인 분석가 및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자율성이다. 일곱째, 모든 사회현상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기술과 사회적 지식의 발달이다. 여덟째, 가정과 학교의 효과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다.

3) 반편견교육의 내용

홀과 롬버그(Hall & Rhomberg)는 편견의 하위 영역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나이,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인종, 성(gender), 성적관심(sexuality) 열 가지를 든다.¹⁴⁾ 그리고 더만 스파크 등(Derman-Sparks & A.B.C Task Force)은 반편견교육의 주제와 하위범주를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민족의 차이점과 공통점이라는 주제는 민족적 정체성 인식, 자아 정체성, 유전적, 신체적 특징을 포괄한다. 둘째, 능력이라는 주제는 재능, 무능력, 장애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편견에 대응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가치를 포괄한다. 셋째, 성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성역할, 성행동, 양성성을 포괄한다. 넷째,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삶의 방식을 포괄한다. 다섯째,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가족 구조와 역할, 사회적, 경제적, 계층, 연령, 세대간의 차

13) Ramsey, *op. cit.* pp. 13-24.

14) Hall, *op. cit.* p. 5.

이,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을 포괄한다 여섯째, 문제해결과 협동이다.

반편견 교육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위의 내용들을 기초로 여러가지 기술이 반영된다. 홀은 상호존중 기술, 적극적 경청을 위한 기술, 정의적 기술, 행동화 기술을 든다. 이러한 기술들은 내용선정의 기초로서, 그리고 교수학습의 계획에서도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¹⁵⁾

상호존중을 위한 기술에는 다른 문화 종족, 신념 존중, 자신과 타인의 독특함의 가치 인정, 성과 능력의 동등함을 존중하기, 관점이 다름을 이해하는 능력, 대안탐색 능력, 개방성을 포함된다. 적극적 경청을 위한 기술에는 유사성과 차이를 파악하는 능력,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 추론능력, 관계짓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 공정한 행동과 불공정한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수집능력, 문제해결능력, 탐구적 태도가 포함된다. 정의적 기술에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신감의 촉진, 감정과 정서의 명명 및 분류, 타인을 돕는 능력, 성취감에 대한 자부심,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능력, 가족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을 이해하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능력, 협동적으로 일하는 능력, 공감능력, 변화극복 능력 등이 포함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기술에는 선택하는 능력, 별명 부르거나 놀리는 것 등을 억제하는 태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능력, 집단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불공정한 상황이나 비평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4) 반편견교육의 방법

반편견교육의 접근방법은 반편견 활동의 계획과 결정 과정에 학생들을 정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합시키고 학생 자신이 사회와 세계에서 맡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태도를 강조한다. 반편견교육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편견교육의 시작이다.

반편견교육의 방법으로는 반응적 접근법, 활동중심의 통합적 접근법, 반

15) *Ibid.*, pp. 4-5.

편견 반영 도서를 이용한 문학적 접근법 등이 있다.¹⁶⁾

반응적 접근법은 편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개입방법이다. 학습자들의 부정적 반응이나 편견적 태도가 발생할 때 교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학습자들의 행동에 대해 반응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자신이 가진 편견을 각성하게 도와주며 어떤 반응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설명하고 대안적인 반응을 제안해 주는 방법이다.

활동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반편견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망을 구성해 보고 그와 연계된 통합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가치 생활방식, 수용적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다.

반편견 도서를 활용한 문학적 접근은 학습자 자신이 가진 편견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선정된 도서는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애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내용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 느낌, 지식을 그것과 연결하고, 본문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며, 본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구성해 감으로써 반편견의 교육효과를 얻고자 한다

III. 남북한 주민간 편견의 형성과 실태

1. 편견의 형성 원인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은 6.25 전쟁, 분단 이후 이질화된 체제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간의 직간접적 갈등들과 그 결과로서 실존적 불신과 적대감, 집단범주와 타자화에 근거한 사회정체감 형성, 우리-그들이라는 대립적 관계에 기초하여 가정, 학교, 사회, 언론에서 이루어진 사회화, 반민족적이며 편견적인 통일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

16) 송숙진, “반편견교육을 위한 유아의 인종, 장애,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9), p. 12.

1) 체제경쟁과 타자화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서로를 타자화하고 적대자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해왔다. 분단 이후 북한은 남한의, 남한은 북한의 중요한 내부타자였다. 타자는 적대적 이미지를 가진 존재였다. 민족정체성의 재현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만들어 내고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민족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남북한 양 체제는 상호 적대감과 타자의 비참함 그리고 자기체제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확보해왔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이미 자기완결적 단위가 되어버린 남북한은 지배이념과 사상, 경제구조에서 이질화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는 실존적 불신과 적대감, 거부감이 존속되고 있다. 북한체제는 장기간 폐쇄체제와 억압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도의 정치사회화과정을 통해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가치를 주입해왔다. 남한은 장기간의 권위주의체제를 거쳐 질차적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적 요인은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의 획일성, 배타성, 불관용성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이다.

2) 사회문화적 학습

남북한 주민의 상호 편견은 일종의 문화적 규범으로서 사회화과정을 통해 학습되어 왔다. 어린 시절의 보상경험, 부모, 친구, 친척, 교사, 언론의 상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배타적 태도의 모방은 편견의 사회문화적 학습의 통로이다.

분단체제에서 교육과 언론은 북한을 타자화시켜왔다. 교육에서 북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었다. 언론을 통해 비쳐진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이었다. 그 결과 북한체제와 북한 인민은 자연스럽게 동일시되었고 북한 주민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사회화는 동포, 궁핍, 통일의 필요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정에서는 북한을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폐쇄적 사회체제, 노동과 감시체제가 있는 비인간적 사회라는 매우 동정적이고 체제 비판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져왔다.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집단주의적이고 엄격하고, 타율적이고, 몰개성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남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는 북한 청소년의 일상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의 경우에도 북한 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나 장면이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모습보다는 대부분 집단적인 의식이나 행사장면이 많아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북한 청소년들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기사 게재나 프로그램 방영은 거의 없었다. 전체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보도가 많았다.¹⁸⁾ 그 결과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의 가난 정도, 북한에서 남한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북한청소년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의 노래, 놀이문화, 북한의 언어 등 청소년의 일상적 삶에 관해 무지하다.¹⁹⁾

남북한의 상호 적대감 교육은 1990년대 이후 남한의 교육에서는 약화되어왔다. 그러나 북한교육에서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 형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²⁰⁾ 북한의 공식적 사회화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남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적 자본주의체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인권

17) 길은배 외 2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60-61.

18) 김기태, “북한청소년관련 대중매체 내용분석 연구”, 『남북한 청소년의 삶과 미래』(서울: 한국청소년학회, 1994), pp. 111-118.

19) 구본용·금명자,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경험세계”,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도전과제』(서울: 청소년상담원, 2000), pp. 55-56.

20) 김미숙,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1호(서울: 교육사회학회, 2002), p. 56.

부재, 사회전체에 만연된 부조리한 생활문화, 권력상층부의 부정부패, 황금만능주의, 사치와 향락,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인한 민족 고유성의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²¹⁾ 그 결과 남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탈북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적응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왜곡된 부정적 인식이 남한 주민의 사치적인 소비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현실에 대한 판단중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²⁾

남한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활용되어 온 자료들은 김일성의 교시, 도덕교육 교과서, 잡지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남조선청소년들이 퇴폐적인 정서풍조로 하여 럽기적인 모험과 순간의 쾌감을 추구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성행하고 있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 매음과 강간, 살인행위와 같은 것은 퇴폐적 풍조의 산물이다.”²³⁾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 4학년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에 기술된 다음 내용들은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 정체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해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군사파쑸독재가 살판치고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 생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고등중학교 3학년 『공산주의도덕』 p. 56.)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재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21) 박재환,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남한사회 인식” 『통일논총』 17권 (1999), pp. 101-102.

22) 박재환, 위의 글, p. 84.

23) 고수길, “청소년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 『주체의 나라』 6 (평양: 평양출판사 편1991), pp. 139-140.

끌고루 분배된다. 자본주의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몫쓸 사회라면 사회주의 사회는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인민의 낙원이다”(고등중학교 4학년 『공산주의도덕』 p. 38.)

『천리마』에 게재되고 있는 기사들은 남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북한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남한 사회, 주민,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기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형성함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외세와 매국반역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 문화와 전통이 심히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있다. 민족성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민족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암흑의 땅 남조선이다.”²⁴⁾

“씩어빠진 부르쥬아식 사랑관에 물젖어 가정을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 청년남녀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다. 이에 따라...리혼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 현실은 극도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기초한 부르쥬아사상문화야말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마약과 같다.”²⁵⁾

2. 편견의 실태

남북한 주민들의 편견은 인지양식, 즉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정서구조, 즉 조건성 대 절대성, 행동경향, 즉 시장지향 대 이념지향의 측면에서 이 질성을 반영한다. 현존하는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통일 이후 서로에 대한 지각, 이미지의 형성과 태도, 행동 의도 등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²⁶⁾

24) 『천리마』 제5호(평양: 천리마사), 2000, p. 61.

25) 『천리마』 제9호(평양: 천리마사), 1999, p. 59.

26) 심진섭,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 남한주민 및 청소년의 편견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적개심과 우월감의 복합물이다. 남한 주민 중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통일의 당위성을 확신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감이 높다. 젊은 세대는 통일에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을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북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월 의식이나 비교우위 의식에 근거하여 북한 및 북한 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며 그로 인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한 정보나 평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적 변수가 개입되지 못한다. 북한의 것에는 경향이 없고 특성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 국가가 무능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무식하다는 생각, 북한 사람들의 삶이 특별하고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²⁷⁾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면서도 사고방식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53%가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이방인이나 무서운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도 47%에 이른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²⁸⁾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말을 건네거나 이웃에 이사 오거나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 비율이 높지만 북한 사람과의 결혼이나 공동사업 등에서는 적극적인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통일 이전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통일

문, 1995, p. 15.

27) 이우영,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교총, 2000), pp. 2-13.

28) 정회욱·권오실,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pp. 96-97.

이후의 북한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궁극적 차별행위 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열등하고 불쌍하며, 공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는 자신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하다, 촌스럽다, 측은하고 불쌍하다,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같다, 가난하고 굶주린다, 냉정하다, 고지식하다, 전투적이다, 폐쇄적이다 등이 포함된다.²⁹⁾

대학생들의 경우 북한 국가와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서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 지배적, 야심적, 이기적, 경쟁적이라고 지각하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가정적, 정직한, 희생적, 호감이 가는, 친절함, 우호적 등 공동체 지향적인 특성을 지각한다. 북한 국가와 북한 남성이 부정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북한 국가의 공격적인, 지배적인, 까다로운, 엄격한, 차가운, 단호한 등의 속성을 북한 남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고, 순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다는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공격적이고, 엄격하고, 진지하다는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함께 가진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³⁰⁾

대학생들에게 북한 주민과의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각 개인의 반응은 평상시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의 양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북한 남성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출신 남성과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들의 북한 남성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고정관념의 양은 북한 출신 주민과의 결혼 여부라는 궁극적 차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여학생들이

29) 구분용·금명자,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경험세계,” pp. 40-43.

30) 조은경·전우영,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000), pp. 368-36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³¹⁾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 이후 북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가지 차이점들로 인해 어렵겠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나아질 것라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북한 청소년끼리 어울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결코 친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조사 대상자의 38%에 이르는 것은 다양한 차별행위가 학급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³²⁾

2) 북한 주민 및 청소년의 편견

북한체제의 외부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 김정일 체제에서 강화되고 있는 사상교육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은 남한 사회, 남한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상당히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공식적인 정치사상화를 통해 습득한 지식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을 아주 못살고 나쁜 나라로 알고 있었으며 탈북 후 중국에서 남한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남한으로 이주한 후에 자신이 허위와 기만 속에 살아온 것을 억울해하는 면담 사례들에서 가능해진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북한 청소년의 성격보다 남한 청소년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교적이라고 평가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더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탈북자들은 남한 청소년의 장점으로 자유로움, 적극적임, 개성이 뚜렷함, 온순함, 예의바름, 다정다감함, 사교적임, 꾸밈없음, 융통성이 있음, 적응력이 높음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이기적임, 잘 속임, 솔직하지 못함, 자기생각을 잘 표현

31) 이수정,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권 1호(1999), p. 75-77.

32) 구본용·김명자,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경험세계,” pp. 51-52.

하지 앓음,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 무례함, 의존적임, 나태함을 들었다.³³⁾

반면에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청소년들에 대해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다, 의리가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기주의적이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용한다 경쟁적이고 남의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다,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한다, 버릇이 없다, 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남자에게 막 대한다” 등으로 그러한 인식을 표현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남한 청소년에 대한 탈북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특정한 인식이거나 그들의 부모, 형제 등의 남한 주민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³⁴⁾

남한 사회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탈북자들이나 탈북청소년들과 달리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교육, 반제국주의교육,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패상에 대한 부정적 교육을 포괄하는 집단 적개심 교육 또는 중요심 교육으로 인해 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아 정체성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집단에서 제공하는 집합적 정체감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고정 관념화된 적에 대해서는 집단적 비난을 하는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 간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교양과 선전을 통해 학습한 공산주의적인 이상적 인간상과 부정적인 남한 사회상을 준거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남한 주민 및 청소년들에 대해 이기적이다, 퇴폐적이다, 잘 속인다, 솔직하지 못하다, 나태하다 등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최현·김지영, “청소년 성격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3년 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 pp. 187-189.

34) 이기영,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권 1호(2002), p. 204.

IV.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통합

1.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갈등

통일의 목적이 오늘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일 때 편견은 극복되어야 한다.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심리적 비용은 통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그리고 양쪽 주민들 내부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통일한국의 우선적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은 국민통합에서 가장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 국민통합은 국민형성(nation building)작업으로 통일한국의 국민적 정체감(national identity)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합은 구성원간에 긴밀한 접촉, 상호거래와 의사소통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제거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는 주민들 상호간에 동정심과 충성심이 증가한 상태로서 우리 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³⁵⁾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국가에의 정체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통일 후 한동안은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각각 자신의 구체제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는 데 최소한 두 세대가 걸릴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2000년 6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동독 지역 주민 중 77%이상이 자신을 동독인으로 생각하며, 45%만이 서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35) 박영호, 『통일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03;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 138.

36) Werner Pfennig, “분단, 정상화, 그리고 통일: 독일과 한국의 비교분석,” 아태평화재단·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편 『독일과 한국: 분단에서 통일까지』(서울: 아태평화재단, 2000), pp. 78-79.

통일국가에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양쪽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인들 사이의 고정관념은 일시에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상이한 체제에서 성장하여서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당혹스러워했다.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들을 활달하며 약삭빠른 사람들로 인식했고,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 청소년들을 둔하고 순진하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통일 이후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적대감이 발생하였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편견은 분명히 표출되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냉담하고, 적대적이며 멸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동정적이거나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³⁷⁾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와 북한 주민들의 반발과 심리적 거리감은 보다 증가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명분을 중시하고 집단 의식, 책임감, 의무감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통일 이후 그들은 남한 주민들보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면서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규범적 가치가 자신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 사실임을 인식하더라도 남한 주민들의 북한체제 비판은 심리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북한 주민들은 평가차원의 이동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이전의 북한 사회에 대해 양가적 감정이 존재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북한 주민으로서 평가되는 내집단 관점의 상황 즉 남한 주민과의 대면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의 긍정적 정체성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신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 즉 외집단 관점에서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이중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³⁸⁾

37)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72-73.

38) 서재진,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서울: 민족통일

통일 이후 북한 청소년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가치혼란과 자아정체성 동기, 태도,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자본주의적 상업문화에 대한 탐닉 등으로 범죄와 일탈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수준과 현실간의 괴리, 남한 청소년들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교육이 이완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퇴행적 행태가 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³⁹⁾

현재 탈북주민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심리적 갈등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편견이나 심리적 갈등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임을 인식할 때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과 차별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탈북 청소년들은 심리적, 사회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의 자유분방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너무나 거침없는 농담을 하고,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남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접근하는 것 등에서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를 경험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또래의 청소년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탈북자란 사실을 숨기고, 언어에서의 차이로 인해 구별되고 조롱과 낙인을 경험하고, 북한 출신임을 신기해하고 빨갱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래서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분노, 정서적 불안정,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를 느끼며, 극단적으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⁴⁰⁾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이 탈북자임을 밝히기를 꺼린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과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들

연구원, 1994), pp. 152-153.

39) 차재호,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10권 1호(2001), p. 11-12.

40) 장창호,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박선경,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기영,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 연구』, 13권 1호(2002), p. 196.

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편견으로 불쾌감을 느낀다. 학교교사들의 몰이해로 인해 탈북 청소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언어적응이 빠르지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난감하고 답답해하며, 남한 청소년과의 친밀감이 감소됨을 경험한다. 남한 청소년들이 변심이 많아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고 정이 없으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의존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렇게 변해감을 안타까워한다.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을 스트레스로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소외감을 경험한다. 특히 남한 학생들끼리만 놀려고 할 때 북한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며, 친구 외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싶다고 고백한다.⁴¹⁾

남북한 주민간의 집단갈등은 남북의 양쪽 주민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남한의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지역갈등, 통일 후 북한에서의 구체제의 기득권집단과 피해자 집단간의 갈등, 통일 후 새로이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간의 갈등, 남북한간의 지역갈등이 중첩됨으로써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수 있다.⁴²⁾

이전의 사회에서의 계층, 계급의 차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행동 반응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의 효과는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인들은 상이한 과거의 경험과 정치의식에 따라 과거를 판이하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 체제지지자, 기득권 세력에 속했던 사람들은 공안국이나 비밀경찰의 희생자들과는 과거와 통일사회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기득권 획득자 및 성공한 사람과 상실자 사이에서도 새로운 대치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독인간에도 상호연대성이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⁴³⁾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갈등

41)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53-77.

42) 박영호,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p. 35.

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대체로 북한에서 당원 출신, 평양 출신의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⁴⁴⁾ 또 대다수 탈북자들은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기를 꺼리는데, 이는 북한에서의 사회계급, 계층의 차이, 그에 따른 상호 불신과 갈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의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일상적 삶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⁴⁵⁾

V.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편견해소 프로그램은 행위적, 인지적, 그리고 동기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적 접근에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집단간 접촉, 협동학습 기법, 편견의 대상이 되어보는 구조화된 경험을 포함된다. 인지적 접근에는 다양한 기제들을 통해 고정관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상위의 목표를 가진 공통적 내집단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재범주화하는 것과 외집단 구성원들이 개별화된 개인으로 보이도록 돕는 교차적 역할과 활동들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을 탈범주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기적 접근에는 외집단으로부터의 위협감의 해소, 내집단과 외집단의 성과가 상호의존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 집단간 사건에 대해 각 개인이 어떤 개인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⁴⁶⁾ 편견의 원인이 감정에 근거한 경우 감정적 측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접촉 친구나 대리 친구, 감정변화를 목적으로 한 학습과 사회화, 외집단에 대한 감정이입방법을 통한 태도변화, 편견반응에 대한 통제, 상위범주의 활성화

43)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교육원, 2002), p. 250.

44) 전우택, “탈북귀순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문, 1997, p. 6.

45) 박재환,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남한 사회 인식” pp. 102-103.

46)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pp. 6-9

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편견의 원인이 고정관념에 의한 것인 경우 고정관념 불일치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집단 성원들에 대한 정보의 학습, 역고정관념의 활성화, 하위 집단화 등이 보다 효과적이다. 편견의 동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함께 결합하여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들간의 갈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여 자신의 신념과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반편견교육 기법들

1) 재범주화와 탈범주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단순한 행동이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주화의 본질을 가르침으로써 범주화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하고 그 부정적 결과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집단 구분은 외집단이 내집단보다 확일적이라는 인식과 집단간 차이의 과장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집단 구성원들이 행동할 수 있음으로 인해 온전한 인간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집단간 접촉을 통해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 구성원들을 개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내집단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외집단 구성원과의 직접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질적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그들이 속한 집단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공로에 의해 판단되는 개인으로서 다루는 것을 배울 때 증진될 수 있다. 외집단 구성원을 개별화하고 개성화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도 감소시킬 수 있다.

2) 상위범주의 활성화

상위의 범주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집단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위집단에의 소속감이 두드러질 때 하위집단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응집적인 상위집단을 만드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의 호감을 증가시키고, 이전의 하위집단들 간에 존재해 온 적대감을 감소시킨다. 공동자원을 사용하는 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별개의 두 집단 구성원이라는 하위범주가 강조되었을 때보다 상위의 공통적인 정체감이 강조될 때 사람들은 덜 방어적이 되고 더 많은 협동적 선택을 한다. 협동적인 과제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상위범주화 조건은 하위범주화 조건보다 편견감소에 더 효과적이다.

상위 범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다. ‘한집단’ 사고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지각자가 상대적으로 외집단으로 간주하는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집단’ 범주를 활성화시키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평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통합된 하나로 지각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외집단으로 간주되는 북한 주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다.⁴⁷⁾

3) 역할채택과 차별의 경험

외집단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외집단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집단간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다. 외집단 구성원들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외집단 구성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집단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제고한다. 역할 채택은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키고 집단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킨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을 유지하기 어렵게

47) 최광선·안상수, “협동과제 수행에서 범주화와 성과정보가 내집단 편과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91, pp. 124-127; 유연재·김혜숙, “‘한집단’ 범주의 접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2000), pp. 97-104.

만든다.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토론하는 방법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논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단점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토론과정에서 토론자들은 서로의 발표 내용을 인내심을 가지고 편견없이 듣고 개인적인 공격은 금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다른 견해들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논쟁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집단따돌림이나 자율적인 반편견 현장의 제정 등 공동체나 학교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역할을 바꾸어 하는 토론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획된, 구조화된 차별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행사해 온 집단의 구성원이 반대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보는 본질상 상호작용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4)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과 정보

고정관념은 스스로 지속되는 인지적 편견과 행동적 경향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변화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방식으로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찾지만 쉽게 자기확인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정관념에 희생된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과 반대되는 증거가 특별히 강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한 고정관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에 주목한다. 고정관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남한 주민의 경우에도 북한에 관련된 사건들을 새로이 접한 후 북한 인식에서의 변화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변화되었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⁴⁸⁾ 고정관념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도록 고무하는 기회가 제

48) 함인희·한정자,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5권(2000), pp. 159-160.

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편견적 낙인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외집단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특성에 부가된 낙인에 불일치하는 외집단에 대한 정보나 역할 모델에의 노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외집단 출신의 긍정적 역할 모델은 암묵적인 편견과 외현적인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5) 집단간 접촉과 협동학습

집단간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집단간 접촉을 위해서는 평등한 지위의 구성원들 공동 목표, 집단간 협동, 그리고 정부나 다른 제도적이거나 문화적 지지와 같은 정당한 권위의 지지 집단간 접촉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진실한 접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⁴⁹⁾ 이외에도 가치, 신념 등에서의 집단성원의 유사성, 능력의 유사성, 긍정적 결과, 집단간 접촉의 전이 가능성, 집단성원의 개별화 촉진, 자발적 접촉, 장기간의 접촉, 다양한 맥락에서의 접촉 내집단성원과 외집단성원이 동료가 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존재한다.⁵⁰⁾

접촉가설이 구체화된 협동학습전략 중 하나인 직소우는 모든 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편견을 해소할 가능성을 가진다. 협력집단 내의 외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고정관념과 불일치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부정적인 집단간 고정관념의 해소 기회, 외집단 구성원의 개별화 가능성을 제공한다. 직소우 수업을 통해 유익한 방식으로 협동할 수 있음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감정이입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⁵¹⁾

49) Nelson, *op. cit.*, pp. 230-231.

50) 이훈구, 외, 『집단간 갈등과 해소』 (서울: 법문사, 1992), p. 205.

51) E. Aronson & S. Patnoe, *The Jigsaw Classroom*(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1997), pp. 9-15

6) 공감 증진 활동

세죽식, 포옹하기(hugging), 촛불의식,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기록한 종이 태우기 의식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의 실천 등은 공감능력과 학생들의 반편견적 사고와 행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실천적 활동이 될 수 있다.

세죽식은 이질적 배경을 가진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다. 발을 씻겨주며 서로에 대해 가진 생각들을 나누는 활동 속에 선입견이나 편견의 해소 가능성이 있다.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상기하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깊이 안아주는 포옹하기의 습관적 행위는 학습자에게서 관용의 가치와 자신의 편견적 행위간의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고 편견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제고시킨다. 촛불을 태우면서 그간 자신이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가했던 편견적 사고와 행위들을 상기하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촛불의식과 자신의 편견적 사고와 행동을 정리한 종이쪽지를 모닥불이나 촛불에 태우는 의식은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교육기관별 반편견교육

1) 가정에서의 반편견교육

가정은 아동의 최초의 준거집단으로서 아동이 체험하는 문화를 선택하고 매개하는 구실을 한다. 5-6세 정도의 아동이라도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해 호오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고 중학교에 이르기까지는 종종 사실적 지식을 가지기 전에 강한 편견을 형성한다 따라서 반편견교육은 아동발달의 초기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의 반편견교육은 아동이 가진 편견의 감정적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반편견 규칙준수를 통한 습관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부모는 반편견의 역할모델로서 반응적 접근법, 문화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을 장기

적 계획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 부모는 아동들에게 타인을 편견에 의해 배척하거나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규칙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반편견 반영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종과 다문화 주제와 관련된 『모두 함께 살아요』, 능력의 주제와 관련된 『내가 만약 몸이 불편하다면』, 『반쪽이』 등을 함께 읽고 일상의 구체적인 삶과 연관시키고 대안에 해당되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학교에서의 반편견교육

학교에서의 반편견교육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길러주고 서로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발달시키고 통일국가에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이 한 교실에 있는 경우 북한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위집단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소우와 같은 협동학습과 소집단토론이 효과적일 것이다. 탈북주민들의 강의에 대한 무관심은 북한에서의 교양 경험에 대한 부정적 관점 때문일 것이다. 학교의 반편견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반편견교육 기법들을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서로의 접촉을 증진시키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의사소통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을 강조하고 의사소통학습 중 하나의 기술인 ‘뉴스전달하기’ 연습과 같은 많은 기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특정 기사를 읽고 해석해서, 말로 그 뉴스를 퍼뜨릴 역할을 할 다른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습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전달된 내용을 써서 원래의 기사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⁵²⁾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인 유사점들을 학습하기, 북한 주민들의 규범, 가치, 역할에 대해 배우기,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이후의 차별을 가정하

52) David Hicks,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p. 92-93.

고, 학생들을 자의적 집단으로 나누어서 자의적 구분에 기초한 차별을 경험해 보게 하기,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 미숙한 북한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무력한 집단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증가된 기회들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글을 적게 하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사례들을 극화하기, 북한 주민이 되어보는 역할놀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협약하기, 북한 주민에 대한 낮은 편견적 태도를 가진 학생과 높은 편견적 태도를 가진 학생들간의 토론하기 등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사회교육의 반편견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은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준학교형태의 사회교육, 문화시설 중심의 사회교육, 관공서 및 산업체에서의 사회교육, 학원교육, 언론을 통한 사회교육으로 구분된다. 남북한의 언론은 상대집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으며 부정적 고정관념 형성의 핵심기반이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언론은 남북한 주민의 서로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해소를 위한 사회교육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통일 이후 재정적인 지원이 축소됨으로써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동독 주민들은 정치교육보다는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동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사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반편견교육은 경제, 문화, 역사 등이 중심이 되는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남북한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그 운영은 각 지역 출신의 인사가 담당하고, 대단위 강의보다는 소집단 중심의 토론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영상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분단국가들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심리적 갈등 사례와 해소사례, 분쟁지역들에서 이질적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교육의 사례들과 영상자료, 우리의 분단과 통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인권의 침해 사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학습과정이 토론과 협동학습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남북한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함축된 민족 간, 민족 내부적 편견과 차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의 교훈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반편견적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언론의 반편견교육은 편견의 인지적 변화와 감정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부정적 고정관념의 해소를 위한 방송물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각 지역을 함께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해가는 기행물, 부정적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담은 방송물, 편견과 차별에 저항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KBS 2의 ‘인간극장’과 같은 형식으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방송물, 부정적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역할모델을 찾아서 그 삶을 보여주는 방송물, 외국의 편견과 차별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편견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Jungle Fever’와 같은 반편견 반영 영화, 상대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방송물, 분쟁지역의 평화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남북한 주민 간 반편견교육과정을 취재하여 주민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방송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송에 대한 접근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편견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편견에 저항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4) 부모교육의 반편견교육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배우는 학습자가 되어서 부모역할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이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인간관계의 향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⁵³⁾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편견교육은 남북한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는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타와 차별에 기인한 다양한 갈등

53) 정옥분·정순화,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2000), pp. 57-60.

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의 관용적 태도 발달을 위한 학습 및 사회화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에 기여하며 부모-교사의 지지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이어져 청소년 편견과 차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탈북 청소년 가정의 경우 부모들은 자년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들보다 낮은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 남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나 놀이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과도한 강조, 자녀의 높아지는 자율성에 대응하는 방법의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통일 이후 이러한 갈등은 북한 주민들의 가정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견될 것이다. 그런데, 남한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우에도 북한 문화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인해 새로운 문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 청소년 발달의 특성 및 과제, 민주적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주한 지역의 청소년 문화의 특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문화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안을 구성할 때 학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기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갈등과 차별 현상을 예상하고 주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근원적으로 양쪽 주민 모두 상대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국가는 체제경쟁과정에서 서로를 외집단으로 타자화시키고 서로를 적대자상으로 설정하여 부정적 사회화를 진행해왔고, 주민들은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을 통해 편견

을 학습하였다. 특히 교육과 언론은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적대감과 불신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편견은 통일 이후 상호접촉이 확대되어지는 생활세계에서 구체적인 차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주민들은 남북한 주민별로 상이한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국가 또는 체제와 주민을 동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몰개성화하여 그들은 열등하고 불쌍하며, 공격적이며, 폐쇄적이며, 촌스럽다는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 동업, 결혼 등에서 차별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감은 북한 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장애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남한 주민들의 특성으로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이고, 무책임하다는 특성을 지각하고 있다. 또 근원적으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에의 소속감을 거부하게 할 위험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교육은 남북한 주민들간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반편견교육이어야 한다. 반편견교육은 주민들의 반편견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통합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집단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편견과 차별에 도전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편견의 희생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반편견교육 방안은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인지적 접근은 다양한 기제들을 통해 고정관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다. 여기에는 상위의 목표를 가진 공통적 내집단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재범주화하는 것과 외집단 구성원들이 개별화된 개인으로 보여지도록 돕는 교차적 역할과 활동들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을 탈범주화하는 것이 포함된

다. 감정적 접근에는 외집단으로부터의 위협감의 해소, 내집단과 외집단의 성과가 상호의존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 집단간 사건에 대해 각 개인이 어떤 개인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행위적 접근에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집단간 접촉, 협동학습 기법, 편견의 대상이 되어보는 구조화된 경험이 포함된다.

통일 이후의 반편견교육은 재범주화, 탈범주화, 상위범주의 활성화,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과 정보의 제공, 역할채택과 차별의 경험, 역할 바꾸어 토론하기, 집단간 접촉과 협동학습, 세족식, 포옹하기, 편견 쪽지 태우기 등의 활동 중심의 공감 증진 활동 등의 반편견교육 기법들을 편견의 원인에 따라, 학습자들의 정서적 발달 수준에 따라, 학습집단의 구성에 따라, 교육기관에 따라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반편견교육은 아동이 가진 편견의 감정적 측면에서의 변화, 반편견 규칙준수를 통한 습관형성, 반편견 반영 도서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부모는 반편견의 역할모델로서 반응적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을 장기적 계획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반편견교육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길러주고 서로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발달시키고 통일국가에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북한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소우와 같은 협동학습과 소집단토론이 효과적일 것이다. 언론의 반편견교육은 편견의 인지적 변화와 감정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부정적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정보제공,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저항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도, 부정적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역할모델의 삶을 보여주는 보도, 반편견 반영 영화, 분쟁지역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남북한 주민간 반편견 교육과정에 대한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반편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 청소년 발달의 특성 및 과제, 민주적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주한 지역의 청소년 문화의 특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문화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안을 구성할 때 학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기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반편견교육은 학습자들의 발달단계,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기관, 학습집

단을 형성한 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고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반편견교육의 구성물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 고수길, “청소년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 『주체의 나라』 6, 평양: 평양출판사, 1991.
- 교육도서출판, 『공산주의도덕』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 1995.
- 교육도서출판, 『공산주의도덕』 고등중학교 4, 평양: 교육도서출판, 1995.
- 구본용·금명자,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경험세계,”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도전과제』, 서울: 청소년상담원, 2000.
- 길은배 외 2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김기태, “북한청소년관련 대중매체 내용분석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남북한 청소년의 삶과 미래』,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1994.
- 김미숙,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2002.
-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 김일성,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혜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교육원, 2002.
-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1호, 1999.
- 박선경,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박영호, 『통일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재환,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남한사회 인식” 『통일논총』, 17권, 1999.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재진,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송숙진, “반편견교육을 위한 유아의 인종, 장애,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심진섭,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안상원 외, 『통일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교육부, 1991.
-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연재·김혜숙,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00.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연구』, 2001.
-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권 1호, 2002.
- 이수정,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권 1호, 1999.
- 이우영,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교총, 2000.
- 이훈구 외, 『집단지간 갈등과 해소』, 서울: 법문사, 1992.
- 장창호,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전경숙,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 전우택, “탈북귀순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1997.
- 정옥분·정순화,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2000.
- 정희욱·권오실,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복희·강완숙,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거리감과 정보 종류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5권 3호, 1998.
- 조은경·전우영,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2000.
- 차재호, “통일한국의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2001.
- 최광선·안상수, “협동과제 수행에서 범주화와 성과정보가 내집단 편파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91.
- 최현·김지영, “청소년 성격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1993년 학술심포지움 발표 논문.

- 함인희·한정자,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여성·386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5권, 2000.
- 홍영오, “암묵적 편견이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천리마』, 1999년 제9호
- 『천리마』, 2000년 제5호
- Allport, G., *The Nature of Prejudice*, 이원영 역, 『편견의 심리』, 서울: 성원사, 1993.
- Aronson, E. & S. Patnoe, *The Jigsaw Classroom*, 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1997.
- Ashmore, R. D. & Del Boca, F. K.,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in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New Jersey: Erlbaum, 1981.
-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Anti-bias Curriculum*, Washington: NAEYC, 1989.
- Hall, N. S., *Creative Resources for the Anti-bias Classroom*, Albany: Delmar Publishers, 1999.
- Hicks, D.,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 Jones, Melinda,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002.
- Jones, E. & L. Derman-Sparks, “Meeting the challenges of diversity,” *Young Children*, vol. 47, no. 2, 1992.
- Katz, P. A., “Development of childrens’s racial awareness and intergroup attitudes,” in L. G. Katz 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 New Jersey: Norwood, 1982.
- Nelson, Todd D.,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and Bacon, 2002.
- Oskamp, S.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 Pfenig, P., “분단, 정상화 그리고 통일: 독일과 한국의 비교분석,” 아태평화재단·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편 『독일과 한국: 분단에서 통일까지』, 서

을: 아태평화재단, 2000.

Ramsey, P. G.,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Young Children*, vol. 37, no. 2. 1982.

Stephan, Walter, *Reducing prejudice and stereotyping in Schools*,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1999.